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켄텍 에너지 클러스터' 2028년 착공

나주시·전남도·에너지공단·전남개발공사 협약...사업비 1947억 산포면 송림리에 40만㎡ 규모 조성...국가 대형 연구시설 유치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특화 산·학·연 집적단지가는 오는 2028년 착공한다.

나주시는 최근 전남도, 에너지공단, 전남개발공사와 '켄텍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켄텍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은 에너지공단 설립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나주시 산포면 송림리 일원에 40만㎡ 규모로 오는 2030년까지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총사업비 규모는 1947억원이다.

에너지공과대가 배출한 우수 인력과 첨단 기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빛가람혁신도시를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에너지 집적단지에는 관련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고 성장 가치가 높은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

기 위해 창업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대학 핵심 연구와 연계된 연구 공간과 실증 공간을 조성하고, 연구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협약을 맺은 기관들은 인공태양공학 연구소 시설과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등 국가 대형 연구시설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개발 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는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전남개발공사는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해 내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2028년 착공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 혁신도시가 에너지 신산업 중심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으로 이전·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연구소 등에 대한 규제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등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과 에너지 공과대 집적화된 산·학·연 기반의 강점을 내걸고 특구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에는 특구유지 실무추진단을 꾸려 지난해 출범한 RE100 중심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짜고 있다.

특구 지정 계획에는 선도(앵커) 기업과 연구소 등 유치 전략도 포함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켄텍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에너지 인재들이 모이는 에너지 수도를 만들어가겠다"며 "국가 에너지신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한전, 전남도, 한국에너지공과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원 강진군수와 도시민들이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발효담다'에서 쌀귀리누룩김치 담그기를 체험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발효음식 '엄지 척'

농업법인 '발효담다'서 팍파티 도시민 80명 음식 만들기 체험

도시민 80여명이 강진에서 발효음식 여행을 했다.

강진군은 최근 성전면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발효담다(대표 김하나)에서 도시 소비자와 음식 단체 회원 80여 명이 발효음식 체험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강진의 치유 발효음식과 농산가공품 등을 체험하는 '팍 파티'를 즐겼다.

쌀귀리산업특구로 지정된 강진에서는 쌀귀리누룩이 특산품으로 꼽힌다.

참가자들은 쌀귀리누룩을 활용해 김치를 담그고 강진에서 난 농산물로 만든 치유 발효음식을 살펴보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팍 파티는 도·농 교류 촉진과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확보를 통해 직거래 확대를 통한 농식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강진 팍 파티를 통해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을 도시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지속적 판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순조...2026년 준공

76억 들여 삼계면에 1350㎡ 규모 용지 매입...내년 실시설계·착공

장성군은 서부권역인 삼계면에 오는 2026년 준공 목표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건립 사업은 장성군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장성군이 서부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률이 67.8%에 달했다.

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필요한지 묻자 71.8%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성군은 삼계면 삼계고등학교 인근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해 서부권 청소년의 문화 예술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건립 터 인근에는 학교와 상무대 아파트가 있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편할 것으로 장성군 측은 내다봤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3717㎡ 부지에 건축면적 1350㎡,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다.

설계 공모를 거쳐 커뮤니티 홀, 방과후교실, 강의실, 동아리방, 노래연습실, 영화감상실, 실내외 집회장 등을 갖출 계획이다.

장성군은 올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방재정투자 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장성군 삼계면 삼계고등학교 인근에 오는 2026년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된다. 건립 터 전경.

하고 용지 매입을 마쳤다.

이 사업은 내년 전남도 전환사업에 선정돼 설계비 3억원 지원이 확정됐다. 내년부터 실시설계와 착공에 들어간다.

총사업비 76억원 중 도비 비중은 80%(61억원)에 이른다.

장성군은 연차적 지원을 통해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서부권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원하도록 차질 없이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군 발주사업 계약 심사 강화 15억원 절약

사업 174건 오류 등 바로잡아

장흥군이 자체 발주 사업에 대한 계약 원가 심사를 강화해 1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전에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발주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

2억원 이상의 공사, 7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계약 등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한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개정에 맞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비 보조사업 등의 계약심사 권한이 장흥군으로 이양돼 계약심사 대상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장흥군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분청, 직속 기관, 사업소 등에서 발주한 사업 174건에 대해 원가 검사 등을 심사해 1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검사서에서 장흥군은 불합리한 공사종류와 공법, 수량과 요율의 과다계상, 노임의 품셈 적용 오류 등을 바로잡았다.

장흥군의 최근 3년간 예산 절감액은 2021년 5억원, 지난해 9억원, 올해 15억원 등으로 늘어났다. 올해 계약심사 예산 절감액은 장흥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원가의 과다·과소 산정 방지와 품질 향상, 합리적인 원가 산출로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차단하겠다"며 "소중한 예산이 사회기반시설 개선·군민소득 증대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군이 겨울철 난방비와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에 농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화순군 지원을 받은 파프리카 재배 유리 온실 내부 모습. <화순군 제공>

농자재서 시설비까지...화순군 시설원에 농가 다각 지원

종자·비료 구매 4억5000만원 투입

화순군이 각종 농자재와 건설자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에 농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원에 작물의 품질을 균일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비료 구매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한 시설 지원비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화순군은 지역 토마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종자·영양액 비료 구매 비용 4억5000만원을 지원하

고 있다. 이는 농가 부담 비용의 30% 수준이다.

또 화순지역 전락 재배작물로 선정된 파프리카, 딸기 재배 농가에도 각종 농자재 구매비를 지원하고 있다.

질산칼슘 비료(1억8000만원), 배지(배양액·1억원), 식물 성장제(2억원) 등 교제 비용이 여기에 포함됐다.

사인머스켓 재배 농가들에는 5000만원을 들여 당도 증가제 구매를 돕고 있다.

최근에는 온실 건립에 쓰는 철제 파이프 가격이

인상되면서 화순군은 ㎡당 2만5000~3만원 시설 건립 보조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섯 보온 커튼 지원비용은 ㎡당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또 시설 환경 관리와 관수시설에 대해서는 실 견적 단가를 적용해 지원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시설원에 농가에 더욱 세밀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영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담양군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올려 5000원

거리요금 130m당 160원으로

담양군 택시 기본요금(2km 기준)이 다음 달 1일부터 50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담양군은 이달 6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회에서 이 같은 인상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담양군은 지역 택시법인 11곳과 개입택시연합회(회장 김수근), 모범운전자회와 택시 운임 요금·요율 협의회 회의를 열어 인상을 논의했다.

오는 12월1일부터 담양군 중형택시 기본요금(2km)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25%(1000원) 인상된다.

거리 요금은 134m당 160원에서 130m당 160원

으로 오른다. 시간 요금은(시간당 15km 주행 때) 32초당 160원에서 30초당 160원으로 인상된다.

시계 외 할증(사업 구역 외 운행), 심야(오전 0~4시) 할증은 기존과 같은 20%로 동결했다.

호출비 1000원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담양군은 기본요금을 포함해 전반적인 택시요금 인상을 19.75%로 권고했다.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6월 이후 4년 만이다. 인건비와 물가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경영 개선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인상이 결정됐다.

한편 담양에서는 이달 현재 법인택시 36대, 개인택시 54대 등 모두 90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